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gy@gmail.com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이대로 둘 수 없다”
대책과 예방, 책임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

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 민주당 환노위 공동주최

민주 “사고 근본적 원인 파악 못해, 면피성 대책만!” 질타

노사안전협의체 구성 제안에 SPC 수용

1천억 안전강화 투자 · 1인 근무 · 교대제 · 야간근무 등 점검

노조 “책임자 처벌 묻겠다 … 8개 공장 작업 중단 · 공동 안전점검하자”

SPC “머리 숙여 사과 …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 강화하겠다”

민주 “노사 협의 완료해 2주 뒤 환노위에 보고하라”

SPC 계열사에서 지난 5월 19일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사고 원인 점검과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SPC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면피성

대책만 쏟아내고 있는 것을 질타하며 노사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노조 역시 “8개 공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노사 공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자”고 요구했다. SPC측은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수용했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이대로 둘 수 없다 - 대책과 예방, 책임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SPC 노사 양측이 참석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5년간 SPC에서만 3번의 사망사고와 8번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실패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 국회의 책임 등 총체적 시스템 운영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김주영 환노위 간사이자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은 “SPC는 지난 2022년 SPL 평택공장 사고 이후 안전 최우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노사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 안전대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박인수 SPC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장의 위반사항도 낱낱이 살펴보겠다”며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법으로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 계열사별 운영한 안전 관련 조직과 인원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설 안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갑용 전국식품산업노련 위원장은 “SPC의 8개 공장, 각 회사별 노사가 함께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공동점검을 실시하자”며 “확실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재발방지는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SPC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노사안전협의체 구성과 노조측의 작업중지를 통한 합동 안전점검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2년 SPL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전 계열사가 안전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SPC측은 ▲사고 설비 관계기관 조사 완료 후 전면 철거 및 폐기 ▲노사합동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 관리 인력 증원 ▲시화공장 생산라인별 설비 점검 및 안전 강화 ▲연속 근무 감축 및 일부 라인에 대한 4조3교대 시범 운영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실질적 예방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SPC의 대책은 결과이지, 원인에 대한 예방책이 아니”라며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새벽 3시경 일하다 사망해야만 한, 그 근무조건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물량 압박은 없었는지, 안전보다 이윤이 우선되었던 문화는 없었는지, 노동자들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는 있었는지 등 실질적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홍배 의원은 “2022년 이후 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박 겉핥기식 조치만 해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가 미리 안전 설비에 투자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사고 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크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2023년 국회 청문회에서 허영인 회장은 ‘노조와 상의해 좋은 의견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비판을 받았다”며 “이후 계속된 사고를 마주하며, 제대로 된 구조적 원인 분석이나 노동안전 관련 예방책을 체계적으로 현장에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일회성,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구조적 개선”을 강조하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야간근무 및 교대제, 1인 작업, SPC가 약속했던 안전강화 1천억원 투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지적된 사항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검토 후, 계획안을 민주당 환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김영훈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이 참석했으며, SPC 도세호 대표이사, 김성민 안전경영본부장, 손영준 전략지원본부장, 이상언 커뮤니케이션본부장, SPC삼립의 황종현 이사회 의장, 김범수 대표이사, 김희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가 자리 했다.

노조측에는 박갑용 전국식품노련 위원장과 박인수 SPC그룹노동조합의회 의장, 김인혁 SPC삼립 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끝/

첨부. 현장사진 및 기획안(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동주최 긴급 간담회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이대로 둘 수 없다”
대책과 예방, 책임주체 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

- ☐ 일 시 : 2025. 5. 29.(목), 10:30 ~ 11:50
-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실(306호)
- ☐ 참 석 :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본부 소속 국회의원
(SPC) SPC삼립 대표이사 및 생산직 노조위원장단

☐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33	03'	■ 개회 발언	김주영 간사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
10:33~10:35	02'	■ 인사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
10:35 ~ 10:45	10'	■ 모두 발언	각 국회의원 및 노동본부장
10:45 ~ 11:00	15'	■ 노조 인사말	박인수 SPC노조협의회 의장
		■ 중대재해 후속조치 및 향후 개선계획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황종현 SPC삼립 이사회 의장 도세호 SPC 대표이사
11:00 ~ 11:50	50'	■ 심층 간담회	※ 비공개 전환

□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김영훈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 주요 참석자(노측)

SPC삼립 노조	김인혁	위원장
SPC그룹 노동조합협의회	박인수	의장 (성남 샤니 노조위원장)
전국식품산업 노동조합연맹	박갑용	위원장

□ 주요 참석자(사측)

SPC삼립	황종현	이사회 의장
	김범수	대표이사
	김회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SPC	도세호	대표이사
	김성민	안전경영본부장
	손영준	전략지원본부장
	이상언	커뮤니케이션본부장

[현장 사진]







